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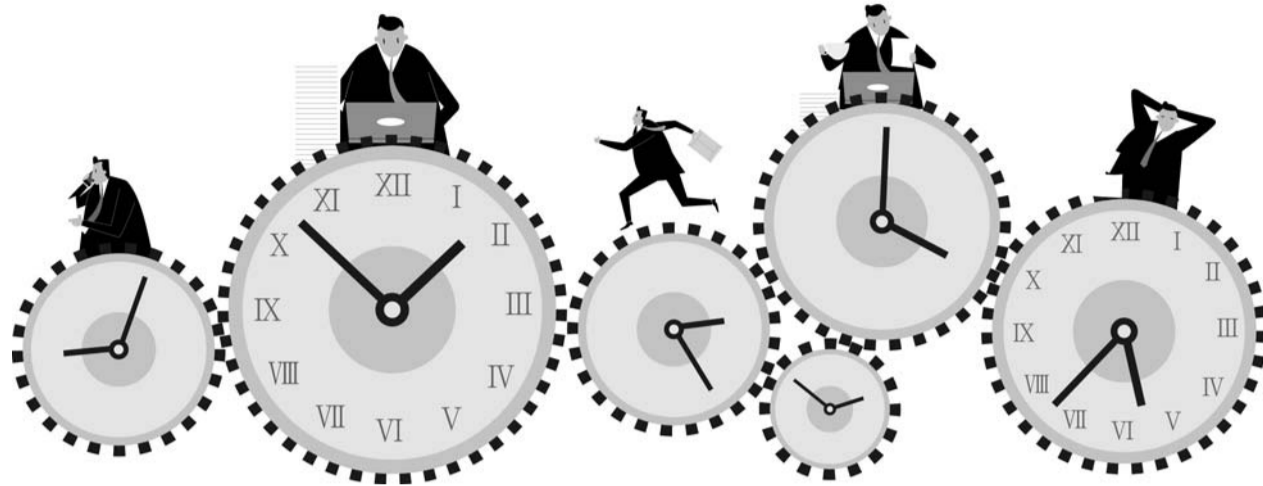
영화처럼... 15개 생애주기로 본 한국인의 삶

생애의 발견

김찬호 지음



“우리는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배우지 못했다. 우리의 수명은 늘었지만, 시간 속에 생기를 불어넣지는 못하고 있다.”



저자는 '생애의 발견'에서 한국인의 삶을 모두 15단계로 구분해 분석하고 조망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밥 무어헤드가 쓴 '우리시대의 역사'에 나오는 구절이다. 바쁘게 살다 보니 무엇이 행복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지 못했다는 의미다.

최근에 '워라밸'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work and life balance'라는 말로 일과 삶의 조화를 뜻한다. 이에 앞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구호가 선거 공약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기존의 팍팍한 생활양상을 바꾸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사실 한국 사회는 피로사회를 넘어 과로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나친 실적 위주 경쟁으로 삶은 황폐화된 지 오래다. 그러는 사이 삶의 의미, 관조할 수 있는 여백이 사라져버렸다.

오늘의 한국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본 책이 발견됐다. '생애의 발견'은 한국인과 한국사회를 빛어내는 일상의 문법을 추적해온 사회학자 김찬호

성공시대 초빙교수의 저서다. 저자는 그동안 '모멸감', '놀변', '사회를 보는 눈리' 등 유수의 책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주목해왔다. 책은 10여년 만에 재출간된 개정판으로, 새로운 판형과 디자인에 통계를 업데이트하고 시의적절한 사례를 담았다.

저자는 한국이라는 사회적 지평 속에서 남녀노소의 다양한 삶을 모두 열다섯 장면으로 분석하고 조망한다. 한국인의 전반적인 생애를 아우르는데 '유년', '사춘기', '공부', '20대', '30대', '연애', '결혼식', '부부', '어머니', '아버지', '노년' 등이 포함돼 있다.

각각의 단계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앞으로의 인생 향로를 가능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연히 책은

발달심리학에서 말하는 생애 주기 이론이나 사회학에서 말하는 세대론과는 계가 다르다.

특히 저자는 지금 한국인들이 통과하는 생애 경로는 비슷한 경로의 반복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윗세대가 겪은 경험을 아랫세대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모든 세대가 생애 매 단계마다 윗세대가 경험하지 않았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산업의 성격, 정치지형, 행정 시스템, 지역사회, 미디어 환경, 인구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향후 펼쳐질 세계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다. 책은 서로 다른 세대와 서로 다른 성(性)의 경험 세계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저자는 공감과 이

입을 바탕으로 서로의 간극을 넘어 공동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 우리의 삶은 팍팍하고 고달프다. 그러나 각자의 생애에서 새로운 발견을 할 때 새로운 삶의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 다른 세대가 타인과 공감할 때 삶은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세대의 현존은 앞 세대의 발자취이거나 다음 세대의 가능성이다. 지금 이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일생을 경험하거나 상상할 수 있다면, 그만큼 존재의 부피는 커질 것이다. 다른 삶에 대한 관심을 통해 자기 삶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향후 생애 경로를 폭넓게 구상할 수 있다.”

<문학과지성사·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동조자 1.2=첫 소설로 2016년 미국을 대표하는 문학상 풀리처상을 수상하며 미국 언론과 문단의 화제를 일으켰던 베트남계 미국 작가 비엠탈 응우옌의 수상작. 소설은 풀리처상 외에도 앤드루 카네기 메달, 펜 포크너 상 등 미국 주요 문학상 9개 부문을 수상했다. 미국 사회 이면을 이중간첩인 주인공 눈을 통해 들여다본 작품으로, 작가는 전쟁과 참상을 독특한 관점으로 바라본다.

<각 권 1만5000원>

▲지역적 낙관주의자= '낙관주의자'라는 말은 세상을 장밋빛으로 보는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최고의 발견가들, 기업가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모두 낙관주의자였으며 세상을 바꾸는 것은 비판이나 무기력어 아닌 낙관주의임은 역사적으로 술하게 증명되었다. 그 가운데 최고의 낙관주의자 유형으로 구분되는 '지역적 낙관주의자'는 기회와 한계를 알고 최상의 미래를 그리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다산북스·1만5000원>

▲21세기에 새로 쓴 인간불평등사=상위 1%가 전 세계 부의 50% 이상을 소유한 지금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를 파헤친 역사. 전 세계 약 37억 명의 부를 합쳐놓은 것과 맞먹는 부를 소유한 부자 수는 2013년 85명, 2015년 62명 그리고 2017년에는 다시 42명으로 줄었다. 저자는 불평등 문제는 모두가 진지하게 생



각해해야 할 공존의 문제로 인식한다. 불평등의 기원, 역사, 이유, 해소방안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와 통찰을 제시한다.

<파리사마·2만9800원>

▲바다의 늑대-바이킹의 역사= '바이킹' 하면 짐작, 싸움, 약탈을 일삼던 해적 을 먼저 떠올린다. 서구에서는 용 모양의 배에서 뛰어내려 수도원을 약탈한 금발의 배에서 뛰어내려 수도원을 약탈한 금발의 자 방송인인 라스 브라운워스는 바이킹의 역사를 통해 서사시인, 영웅, 여행자로 이루어진 북유럽 세계를 되살려내며 유럽의 역사를 풀어낸다. 특히 당시 지도와 인명, 기명 등을 사전에 실어 이해를 돕는다.

<에코리브르·1만7000원>

치매 노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실수하면 어떡해요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

오구니 시로 지음, 김윤희 옮김



음식점의 가장 기본인 '주문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요리점이 왜 인기를 모은 걸까. 이유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치매노인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기발한 프로젝트를 기획한 NHK 방송국 PD 오구니 시로가 가게 문을 열게 되기까지의 과정, 종업원으로 참여한 치매환자들의 사연, 레스토랑 오픈 후 펼쳐진 이야기 등을 담아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을 펴냈다.

저자는 취재를 간 간병시설에서 예정된 메뉴가 아닌 엉뚱한 음식을 대접받는 경

험을 한 후 치매 노인들로 스태프를 꾸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조금 불편하고 당황스럽더라도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새로운 가치관이 퍼져 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하는 마음에서였다. 일본은 약 460만명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다.

기획 초기 단계에는 치매 노인을 웃음거리로 만들거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요식업 브랜드 전문가, 간병 전문가, 디자이너, 미디어, 클라우드 펀딩 업체 등이 힘을 합쳐 '최고의 질과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일부러 실수를 조작하지 말 것' 등의 원칙을 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다.

한 때는 대기업 비서였고, 잘 나가는 미용사였고, 유능한 선생님이었던 치매 환

자들은 스태프로 변신해 주문을 받았고 60% 이상의 테이블에서 주문 착오가 있었지만 손님의 90%는 "꼭 다시 오고 싶다"는 응답을 했다.

NHK를 통해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북지 선진국이라는 노르웨이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취재 요청이 이어졌고 기부 문에도 쏟아졌다.

결국 그해 9월16일부터 18일까지 도쿄 롯본기에서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을 다시 오픈했고, 실수 발생율이 30%로 떨어졌다. 이후 치매 질환에 대한 개롱 이벤트로, 유명한 카페 체인과 '주문을 틀리는 카페'를 열었고, 앞으로도 일본이든, 세계 다른 곳이든 어딘가에서 다시 레스토랑을 열 생각이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가 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드는 우리나라에도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이 문을 열지도 모르겠다.

<웅진지식하우스·1만4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무슨 꿈일까?=조은수 작가의 글과 채상우 작가의 그림이 어우러져 출간된 세 번째 그림책. 책에 등장하는 사자, 오리, 얼룩말, 새, 고래 등 숲과 바다를 아우르는 여러 동물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다. 저마다 마음에 빛나는 꿈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책은 생각만으로도 행복한 미소를 띠게 만드는 다양한 꿈을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꿈을 상상하고 또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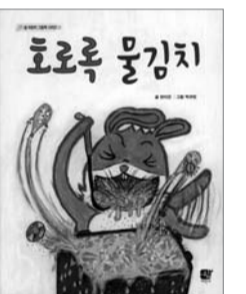
<한울림어린이·1만2000원>

▲호로록 물김치=어린이들은 김치가 빨강다고만 생각할까? 계곡처럼 맑은 김치도 있다. 책은 물김치 속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귀엽고 재미있는 캐릭터로 표현했다. 시원한 계곡물을 향해 가는 동안 만난 재료들이 사실은 물김치를 담그는 과정이었다는 신선한 반전은 그림책의 재미를 한껏 높여준다.

<쉬어어린이·1만2000원>

▲한 줌의 모래=행복한 여름휴가의 추억을 담은 올리스 남매의 이야기다. 남매는 아빠와 바닷가로 여름휴가를 떠났고 그곳에서 온몸이 흠뻑 젖도록 재미있게 파도를 탄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금발 모래를 파도며 모래성을 쌓아 튼튼한 요새를 만들기도 하며 최고의 휴가를 보낸다. 일상이 돌아온 후, 남매는 신발 속에 가득 남은 모래를 보고 상상의 나라를 편다.

<북스토리아이·1만2000원>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